국어 동사의 일 분류[1]
- 金田一春彦의 일본어 동사 분류 -

睦　宗均

들어가기

중국어 "我明白"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私は分かります(알(다)+ 상대 높임[2]/ 저는 압니다)"이고, 중국어 "我知道"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私は知っています(저는 알(다)+ 상[3]+ 상대 높임 / 저는 알고 있습니다)"가 된다. "私は知っています(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4] 私は知ります(알(다)+ 상대 높임 / 저는 압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색하고, "私は分かります(저는 압니다)" 대신에 "私は知っています(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뽐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일본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知る'와 '分かる'[5]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휘이면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느냐고 외국인이 물어 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중국인 유학생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문하던 중에 얻은 답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제 1 장　일본어 동사의 4 가지 유형

일본어 동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는 방법, 의지 동사와 무의지 동사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독립 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누는 방법,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로 구별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지만, 이 글에서는 그동안 그다지 검토되지 않았던 분류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동사가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관점에서 본 동작•작용의 종류에 대한 분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면 "상적 관점에서 본 일본어 동사 분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명칭에 대한 적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가르침을 기다리고자 한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어 동사를 보면 크게 4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동사는 "동작•작용을 나타낸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통상 시간을 초월한 관념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예를 들면, "机がある(책상이 있다)", "吾輩は猫である(나는 고양이이다)"의 'ある(있다, －이다)', "英語の会話が出来る(영어 회화를 할 수 있다)"의 '出来る(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다른 일반 동사는 어간에 '－ている(상 / －고 있다, －어 있다)'[6] 가 결합해 이른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이들 유형의 동사는 '－ている' 와는 결합할 수 없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동사라고는 하나 동사보다는 형용사에 가까운 동사로, 선행연구 중에는 鈴木朖("言語四種論")와 같이 형용사로 분류한 연구자도 있었다. 이와 같은 동사를 이글에서는 '상태동사'라 부르겠다.

두 번째 유형의 동사는 확실히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기는 하나 해당 동작•작용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행해짐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本を読む(책을 읽다)"의 '読む', 혹은 "字を書く(글씨를 쓰다)"의 '書く'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読む(읽다)', '書く(쓰다)'가 동작을 나타낸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이들 동사에 의한 동작은 5 분 또는 10 분이라던가, 혹은 1 시간 또는 2 시간 등, 항상 일정 시간 내 계속 지속함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이 부분이 아래에서 언급할 세 번째 유형 동사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두 번째 유형의 동사는 '－ている(－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는데, 함께 어울리면 해당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해당 동작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아직 나머지 동작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동사를 '계속동사'라고 부르겠다.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동사 중 "雨が降る(비가 오다)", "風が吹く(바람이 불다)" 등도 이 유형에 속하는데 보통 머리에 떠오르는 대부분의 동사가 이 유형에 속한다 .

세 번째 유형의 동사는 위에서 언급한 동사와 같이 동작•작용을 나타내기는 하나, 이들 동사에 의한 동작•작용은 순간에 끝나버리는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예를 들면 "人が死ぬ(사람이 죽다)"의 '死ぬ', "電燈が点く(전등이 켜지다)"의 '点く'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死ぬ(죽다)'는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기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死ぬ'가 시작하나 그 순간 '死ぬ'는 끝난다. "うちの親爺は中風を七年患って死んだ(죽(다)+ 과거 / 우리 아버지는 중풍으로 7 년을 앓다가 죽었다)"의 경우도, 7 년간은 아직 '死ぬ'라는 현상은 시작되지 않았다. '죽기 시작하고 있다'라고는 하지 못한다. 7 년 중 최후의 한순간에 '死ぬ'가 시작, 또 그와 동시에 종료된다. '(電燈が)点く((전등이) 켜지다)'가 순간적인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는 '－ている最中だ(－고 있는 중이다)'와 어울리지 못하며, '－ている'와 결합하면 해당 동작•작용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동사를 '순간동사'라고 부르겠다 .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중에는, 해당 동작•작용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새인가 끝나 있어 '現在 －ている最中だ(현재 －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 없는 동사가 있다. '結婚する(결혼하다)', '卒業する(졸업하다)' 등이 이와 같은 예이다. 몇 시 몇 분에 결혼했다고 할 수 없으며, 결혼 전 또는 결혼 후에 몇 시간 걸려서 결혼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들 동사 또한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순간동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

라 생각되기에 이 유형에 넣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의 동사인데, 이들 동사는 시간관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상태동사와 닮았으나, 상태동사가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데 비해 이들 동사는 어떤 상태를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싶다. 예를 들면 '山が聳えている(산이 솟아 있다)'의 '聳える(솟다)'가 그 예이다. 이 유형의 동사들은 항상 '－ている(－고 있다)'와 결합한 형태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 때문에 '聳える(솟다)'는 동작•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동사 단독 형태로 쓰이는 일은 없다. '聳える(솟다)'가 가지는 의미는 '(一つの山が他の山に対して)高い状態を帯びる(하나의 산이 다른 산과 비교해) 높은 상태를 띠다'인데 '帯びる(띠다)'라고 표현하면 이전에 낮았던 산이 새로 높아진 것 같아 곤란하다. '다른 산보다 높은 상태에 있다'는 상황을 'いる(있다)' 라고 하는 개념과 또 하나의 x 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석해 나타내면, x 가 다름 아닌 '聳える'이다.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나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믿는다. 이와 같은 동사로는 'あのひとは高い鼻をしている(하(다)+ 상 / 그 사람은 높은 코를 하고 있다(= 콧대가 높다))'의 'する'이다. 이 경우도 '－ている(－고 있다)'와 어울린 형태로만 쓸 수 있다. 이들 동사에 대한 적당한 명칭을 찾지 못해 '제 4 종동사'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이 이 글에서는 일본어 동사를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했으나 이 같은 분류법 모두가 본인의 창안(創案)이 아님을 밝혀 둔다. 첫 번째 유형인 상태동사가 다른 동사와 구별됨은 일찍이 "広日本文典"에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인 계속동사와 순간동사의 대립에 대해서는 이미 山下大三郎박사("改撰標準日本文法"의 p.411), 佐久間鼎박사("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의 p.320 이하), 服部四郎선생님("蒙古とその言語"의 p.176)이 언급하였다. 다만 네 번째 유형의 동사를 제시한 것, 각각의 동사를 4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본 것, 그리고 활용형이나 결합하는 부속사(付属辞)[7] 류의 대립을 자세하게 음미해 본 것 등이 이 글의 창안이라고 하면 창안이라고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제 2 장　일본어 동사의 4 가지 유형과 그 소속 상황

먼저 현재 일본어에 존재하는 일반 동사를 앞 장에서 서술한 4 종류의 유형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태동사 'ある(있다)'('机がある(책상이 있다)', '本箱がある(책장이 있다)'의 'ある'), 그리고 같은 'ある'('我輩は猫である(나는 고양이이다)' 등에 있어서의 'ある'), 'ござる(계시다, 있나이다)'(예 '次は銀座四丁目でございます(다음은 긴자 4 초메입니다)') 등이 있다. 가능을 나타내는 '出来る(할 수 있다)' ('英語の会話が出来る(영어회화

를 할 수 있다)'), '行くことが出来ない(할 수 없(다)+ 부정 / 갈 수 없다)'가 상태동사의 예이고, '恋人が出来る(애인이 생기다)', 'おできが出来る(종기가 나다)'와 같이 성립을 나타내는 '出来る'는 잠시 후에 살필 〔3〕의 순간동사에 속한다. 소위 가능상 동사는 모두가 이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면 '切れる(자르(다)+ 가능 / 자를 수 있다, (칼이) 잘 들다)' ('このナイフはよく切れる(이 칼은 잘 든다)'), '話せる(말하(다)+ 가능 / 말할 수 있다, 말이 잘 통하다)' ('親爺がなかなか話せる(아버지하고는 꽤 말이 통한다)'). 본고 서두에서 예로 들었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分かる(알다)'도 이 유형에 속하는데, 상태동사는 '－ている(－고 있다)'와 결합하지 못하고 동사 단독으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 외에 '見える (보이다)' ('如何にも強そうに見える(정말 강하게 보인다)'), '言う(말하다, －라고 (말)하다)' (단, '秀吉と言う人(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 등의 '言う'), '要する(필요하다)' ('三時間を要する(3 시간이 필요하다)'), '値する(가치가 있다)' ('注目に価する(주목할 만하다)'). 형용사 어간에 '過ぎる(지나가다, 지나치다)'가 결합해 만들어진 복합동사, 예를 들면 '大きすぎる(크(다)+ 지나치다 / 너무 크다)', '小さすぎる(작(다)+ 지나치다 / 너무 작다)'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영어에서는 'have', 'live', 'know' 등이 모두 상태동사이지만, 일본어에서는 상태동사가 그 수효가 적으며 또한 'もつ(가지다)', '住む(살다)', '知る(알다)'는 모두 순간동사에 속한다. 'ある(있다)'와 함께 존재를 나타내는 'いる(있다)'[8] 는 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태동사로 분류돼야 하나 아래에서 보듯 여러 다른 점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동사이다.

〔2〕 계속동사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는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데, 앞에서 열거했던 '読む(읽다)', '書く(쓰다)' 외에 '笑う(웃다)', '泣く(울다)', '歌う(노래하다)', '喋る(말하다)', '歌う(노래하다)' 등이 이에 속하며, 또 '見る(보다)', '聞く(듣다)', '食う(먹다)', '飲む(마시다)', '舐める(핥다)', '吸う(들이마시다)', '押す(밀다)', '引く(당기다)', '歩く(걷다)', '駆ける(뛰다)', '滑る(미끄러지다)', '泳ぐ(헤엄치다)', '刈る((풀을) 깎다)', '剃る(면도하다)', '縫う(꿰매다)', '拭く(닦다)', '掃く(쓸다)', '働く(일하다)', '考える(생각하다)', '勉強する(공부하다)', '工夫する(궁리하다)'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花が)散る((꽃이) 지다)', '(雨が)降る((비가) 내리다)', '(地が)揺れる((땅이) 흔들리다)', '(火が)燃える((불이) 타다)' 등 이들 모두가 이 유형에 속한다.

〔3〕 순간동사　앞에서 든 '死ぬ(죽다)', '(電燈が)点く((전등이) 켜지다)' 외에, '(電燈が)消える((전등이) 꺼지다)', '触る(닿다)', '届く(도달하다)', '離れる(헤어지다)'

(단, ‘멀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면 계속동사), ‘きまる(정해지다)’, ‘見つかる(발견하다)’, ‘(眼が)覚める((잠이) 깨다)’, ‘(時計が)止まる((시계가) 멎다)’ 등이 있다.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인 ‘初まる(시작하다)’, ‘終わる(끝나다)’, ‘出発する(출발하다)’, ‘到着する(도착하다)’, ‘(病が)癒える((병이) 낫다)’, ‘(雨が)止む((비가) 그치다)’, ‘(煙草を)止める((담배를) 끊다)’, ‘結婚する(결혼하다)’, ‘離婚する(이혼하다)’, ‘卒業する(졸업하다)’, ‘入学する(입학하다)’, ‘残る(남다)’, ‘尽きる(다하다)’, ‘失う(잃다)’, ‘忘れる(잊다)’ 등 그 수효는 절대 적지 않다. 이 글 처음에 소개한 ‘知る(알다)’도 순간동사에 속하는데, ‘知る(알다)’라고 말할 때는 해당 내용을 지식으로서 알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재 지식으로써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는 ‘知っている(알(다)+ 상 / 알고 있다)’, 즉 “과거에 ‘알다’라는 체험을 한 그 결과가 현재 남아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分っている(알(다)+ 상 / 알고 있다)’의 ‘分る(알다)’는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의 ‘分る(알다)’와는 다른 어휘로, ‘지식으로써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자동사로 이 동사 또한 순간동사이다.

〔4〕 제 4 종동사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는 그 숫자가 매우 적지만, 위에서 들었던 ‘聳える(높이 솟다, 치솟다)’ 외에, ‘すぐれる(뛰어나다)’, ‘おもだつ(주가 되다, 중심이 되다)’, ‘ずばぬける(빼어나다)’, ‘ありふれる(넘쳐나다)’ 등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才気走る(재기가 넘치다)’, ‘才はじける(약삭빠르다)’, ‘にやける(간들거리다)’, ‘ばかげる(어이없다)’ 등이 있다. ‘富む(풍부하다)’, ‘似る(닮다)’도 순간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현재로써는 제 4 종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高い鼻をする(콧대가 높다)’, ‘丸顔をする(동그란 얼굴을 하고 있다)’, ‘紳士然とする(점잖은 척하다)’, ‘坊ちゃん坊ちゃんする(도련님 행세를 하다)’, ‘しんねりむっつりする(꽁하고 있다)’, ‘のんべんだらりとする(빈둥빈둥하다)’ 등이 있다.

지금까지 각 유형에 속하는 동사의 예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본어에 존재하는 모든 동사가 본고에서 제안한 유형 중 어느 한 가지 유형으로 반드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 두 가지 이상의 복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먼저, 두 번째 유형인 계속동사와 세 번째 유형인 순간동사에 속하는 동사가 특히 많은데, 이른바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모두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来る(오다)’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동작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계속동사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쪽에 도착한 순간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순간동사이다. 그러므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今此方へ来ている(오(다)+ 상 /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まだ此方まで来ていない(오

(다)+ 상 + 부정 / 아직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다(= 오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다. '行く(가다)', '入る(들어가다)', '出る(나가다)', '上がる(올라가다)', '下がる(내려가다)' 등도 '来る'와 같이 이동의 도중은 물론 도착 순간도 나타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순간동사와 제 4 종동사를 겸하고 있는 동사도 적지 않다. 못이나 부젓가락과 같은 것에 대해 'この釘(火箸)は曲っている(구부러지(다)+ 상 / 이 못(부젓가락)은 구부러져 있다)'라고 말할 경우, 그 못이나 부젓가락은 원래 곧바르던 것이 어느 순간 굽어진 것이기 때문에 '曲る(구부러지다)'라는 동사는 순간동사이지만, 'この道は曲っている(이 길은 구부러져 있다(= 굽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처음부터 굽어 있었기 때문에 제 4 종동사의 예이다. 'いつまでも火鉢にくっついている(달라붙(다)+ 상 / 언제나 화로에 달아붙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과거 어느 때 화로 앞에 붙어 있는 것이기에 'くっつく(달라붙다)'는 순간동사이지만 '西洋人は眼と眉毛がくっついている(서양인은 눈과 눈썹이 붙어 있다)'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くっつく'는 제 4 종동사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인 상태동사와 제 4 종동사를 겸하는 동사도 있다. '違う(다르다)'는, 신발 지기에게 'この下駄は違う(이 나막신이 다르다(= 내 나막신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고, 'この下駄は違っている(다르(다)+ 상 / 이 나막신이 다르고 있다(= 내 나막신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違う(다르다)'라고만 할 때는 상태동사이나 '違っている(다르(다)+ 상)'라고 할 경우에는 제 4 종동사이다. 'あの人は私の叔父に当る(저 사람은 내 숙부에 해당한다)'와 'あの人は私の叔父に当っている(해당하(다)+ 상 / 저 사람은 내 숙부에 해당하고 있다 (= 해당한다)'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当る(해당하다)'도 상태동사와 제 4 종동사를 겸하고 있는 동사이다.

제 2 장 도입부에서 예로 들었던 동사는, 각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동사를 제시한 것이지만 이들 동사가 항상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読む(읽다)'는 계속동사인데 'あの人の本の読み方の早いのには驚いた、今読み初めたと思ったらもう読んでいる(읽(다)+ 상 / 그 사람의 책 읽는 속도가 빨라 놀랐다. 방금 읽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다 읽었다)'의 '読む(읽다)'는 '다 읽다' 라는 의미로 순간동사의 예이다. 그리고 'この子は相当難しい本でも読む(이 아이는 꽤 어려운 책도 읽는다)'의 '読む(읽다)'는 '이 아이'의 속성이라고 판단한 것이기에 이 경우의 '読む'는 상태동사로 보인다. '死ぬ(죽다)'는 순간동사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この頃は栄養失調のために都会の人がどんどん死んでいる(죽(다)+ 상 / 요즘 영양실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잇달아 죽고 있다)'의 '死んでいる(죽고 있다)'는 '死ぬ'의 진행형으로 이 경우의 '死ぬ'는 계속동사로 쓰인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사 분류를 다루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동사는 그

수효가 꽤 많은 데 비해 오로지 하나의 유형으로만 분류되는 동사는 그 숫자가 상당히 적다. 아니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하게 되어, 과연 동사 분류는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맞부닥뜨리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잠시 이 글의 동사 분류가 일본어 문법 연구에 끼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제 3 장　활용형 용법으로 살펴 본 각 유형 동사의 차이

본고에서 제안한 동사 분류는 일본어 동사의 각 활용형 용법은 물론, 각종 부속사의 의미를 논할 때보다 정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는 본고에서 제안한 동사 분류에 따라 나눈 각 유형의 동사는, 각 활용형은 물론 각종 부속사와 결합한 형태에서 명백한 대립을 보이기 때문이다. 제 3 장에서는 먼저 각 활용형이 단독으로 쓰일 때 보이는 각 유형 간 동사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종지형(終止形)[9] 용법이다. 동사의 종지형 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라든가, "현재의 습관적인 사실을 나타낸다"라든가, 그 외 몇 가지 용법이 있다고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안한 4 가지 유형의 동사가 각각의 종지형에서 위에서 언급한 용법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상태"라는 용법은 상태동사만이 가지는 용법이다. '机がある(책상이 있다)', '英語の会話が出来る(영어 회화를 할 수 있다)', 'このナイフはよく切れる(이 칼은 잘 든다)' 등은 모두 상태동사의 종지형으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계속동사는 '彼は今字を書く(그는 지금 글씨를 쓴다)'의 경우, '그는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잡고 있다'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나타낸다고 보든가, 혹은 '그는 예전에 글씨를 쓰는 따위는 매우 싫어했지만, 현재는 글씨를 쓰게 되었다'라는 의미, 즉 현재의 습관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간동사를 사용해 '彼は今死ぬ(그는 지금 죽는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현재의 습관적인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태동사의 종지형과 계속동사의 종지형에 의해 실현되나, 순간동사 중에는 종지형이 이와 같은 용법을 나타내지 못하는 동사가 비교적 많은 것 같다. 예를 들면 '* 私はいつも－－－に結婚する(나는 항상 －－－와 결혼한다)'에서 '－－－'에 들어갈 적당한 어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순간동사에 속하는 동사는 순간적으로 끝나는 동작•작용을 나타냄과 동시에 한 번 발생하면 두 번은 발생하기 어려운, 이를테면 중대한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死ぬ(죽다)'가 두 번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습관적인 사실을 나타낼 경우 해당 동사가 상태동사로 쓰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제 4 종동사는 항상 '－ている(상 / －고 있다)'와 결합해 쓰이기 때문에 종지형 용법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연체형(連体形)인데[10] 이 용법은 종지형 용법과 비슷하지만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지형 중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상태동사뿐이었다. 그러나 연체형에서는 계속동사 또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庭に鷲の鳴く声が聞こえる(울(다)+(명사)/ 마당에서 독수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畠を打つ農夫の姿が見られる(갈(다)+(명사)/ 밭 가는 농부의 모습이 보인다)' 등,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라는 뜻으로 '鳴く', '打つ'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들 어휘는 문어체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나 순간동사의 연체형은 결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은 없다. 순간동사가 나타내는 현상은 순간적인 것이라서 현재 해당 현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순간동사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명령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명령형에서는 상태동사와 제 4 종동사가 다른 동사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이들 동사에는 명령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もっと数学が出来ろ(할 수 있(다) + 명령 / 좀 더 수학을 할 수 있어라)'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약해 보이는 아이에게 '＊強そうに見えろ(보이(다)+ 명령 / 강하게 보여라)'라고도 할 수 없다. 최근에는 '女性よ、淑やかであれ(이(다)+ 명령 / 여성이여, 정숙하여라)'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読め(읽(다)+ 명령 / 읽어라)', '書け(쓰(다)+ 명령 / 써라)' 등과 견주어 보면 억지로 만든 표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와 관련해 상기되는 것은 이른바 "가능 조동사(助動詞)[11] 는 명령형이 없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동사에 가능 조동사가 결합한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가능상 동사, 다시 말해 일종의 상태동사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로부터 "가능 조동사에는 명령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태동사에는 명령형이 없다"라고 하는 상위의 법칙을 따르는 하위 법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상태동사 중에서 '居る(있다)'는 당당하게 'いろ(있어라)'라고 하는 명령형을 가지고 있기에 상태동사 중에서도 계속동사 쪽에 좀 더 가까이 위치한 동사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계속동사•순간동사는 원칙적으로 명령형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

지금까지 언급한 활용형 외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활용형으로는 연용형(連用形)[12] 이 있는데 그 사정이 복잡하기에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 장에서 다루기에는

그리 적당하지는 않지만 각 유형 동사의 연용형에 접두사 'お'[13] 가 결합한 형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お + 상태동사 연용형'인데, 예를 들면 'お有り(お + 있(다)+ 연용형)', 'お出来(お + 할 수 있(다)+ 연용형)'는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다. 'お子様はお有りですか(お + 있(다)+ 연용형 + 상대 높임 + 의문 / 자녀분이 있으십니까?)'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누군가를 방문하고자 할 때 '明日御用がお有りですか(내일 일정이 있으십니까?)'는 미래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과거 일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인이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하고, 다음날 그 지인을 만났을 때, '* 昨日何か御用がお有りですか(어제 뭔가 용무가 있으십니까?)'는 많이 어색하다. 'お有りでしたか(お + 있(다)+ 연용형 + 상대 높임 + 과거 + 의문 / 있으셨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다음으로 'お + 계속동사 연용형'은 상태동사와는 달리, 예를 들면 'お読み(お + 읽(다) + 연용형)', 'お書き(お + 쓰(다)+ 연용형)'는 현재•과거•미래를 구별하지 않고 해당 동작 • 작용을 나타내는 데 쓴다. 타인이 옆에 놓아둔 신문을 빌리려고 할 경우, 'もうお読みですか(お + 읽(다)+ 연용형 + 상대 높임 + 의문 / 다 읽으셨습니까?)'는 과거를 나타내고, 타인이 지금 읽고 있는 신문을 엿보면서 '今何処をお読みですか(지금 어디를 읽으십니까?)'는 현재를 나타낸다. 그리고 내일 또는 모래 읽을 지를 알고 싶어 '何時お読みですか(언제 읽으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래를 나타낸다.

'お + 순간동사 연용형' 은 위에서 언급한 동사 유형과는 그 쓰임이 크게 달라 과거와 미래를 나타낸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何時お立ちですか(お + 출발하(다)+ 연용형 + 상대 높임 + 의문 / 언제 출발하셨습니까?)'는 과거를 나타내고, 이제부터 막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何時お立ちですか(언제 출발하십니까?)'는 미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형태로는 현재를 나타낼 수 없는데 이는 연체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お + 제 4 종동사 연용형'인데 이 형태는 상술한 다른 동사와 근본적으로 달라, 'お + 연용형'과 같은 형태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似る(닮다)'의 '* お母さんによくお似だ(お + 닮(다)+ 연용형 + 이다 / 어머니와 꽤 닮았다)'는 일반적이지 않다. '高い鼻をしている(콧대가 높다)'도 '* 高い鼻をおしだ(お + 하(다)+ 연용형 + 이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高い鼻をしていらっしゃる(하(다)+ 연용형 + 상 + 계시다 / 콧대가 높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 4 장　부속사(付属辞)와의 결합 형태에서 보이는 각 유형의 차이

제 4 장에서는 본고가 제안한 4 종류의 각 동사 유형에 접사(接辞)[14] 가 결합한 형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유형의 차이가 한층 명료해 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미연형(未然形),[15] 연용형 순으로 결합하는 접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미연형(未然形)＋부속사

동사 미연형과 결합하는 조동사(助動詞)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사동의 '－せる', '－させる'와 피동의 '－れる', '－られる'일 것이나 이들 조동사가 결합할 경우, 상태동사와 제 4 종동사는 다른 동사 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태동사와 제 4 종동사는 이들 조동사가 결합하기 어렵다. '泳げる(헤엄치다)'에 'させる(사동)'를 결합, '＊泳げされる'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 '見える(보이다)'와 '－られる(피동)'가 결합한 '＊見えられる'는 논리적으로는 성립하나 실제로는 비문이다. 계속동사, 순간동사는 '－せる', '－させる'는 물론 '－れる', '－られる'와도 문제없이 잘 어울린다. '本を読ませる(읽(다)+ 사동 / 책을 읽히다)', '他人に手紙を読まれる(읽(다)+ 피동 / 다른 사람에게 편지가 읽히다(= 다른 사람이 편지를 읽다))', '成るべく楽に死なせる(죽 (다)+ 사동 / 되도록 편하게 죽게 하다)', '一人息子に死なれる(죽(다)+ 피동 / 외아들이 죽임을 당하다 (= 외아들이 죽었다))' 등, 이들 모두 일반적인 표현이다.

다음으로 부정(否定) 조동사 '－ない'가 결합한 경우인데 이 조동사는 동사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결합하나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먼저 상태동사와 결합하면 현재 또는 미래의 상태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寒そうに見えない(보이(다)+ 부정 / 춥게 보이지 않는다)'는 '寒そうに見える(춥게 보이다)'의 부정으로 현재 상태에 대한 부정이며, '明日は用事があって出席が出来ない(할 수 있(다)+ 부정 / 내일은 일이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미래의 상태에 관한 부정이다. 그러나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은 나타내지 못한다. 어제 일이 있어 참가하지 못한 경우, '＊昨日は出席出来ない(어제는 출석할 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出席出来なかった(할 수 있(다)+ 부정 + 과거 / 출석할 수 없었다)'라고 해야 한다.

'계속동사 + ない'는 과거 및 미래 사실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読む(읽다)+ ない'를 예로 들면 '私はこの新聞を読まない(읽(다)+ 부정 / 나는 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라고 한 경우, '나는 아직 이 신문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 즉 과거 사실의 부정을 나타내거나 혹은 '나는 장래에 있어 읽을 의향이 없다'는 의미, 다시 말해 미래 사실의 부정을 나타내거나 한다. 그러나 현재 사실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일은 없다. 이미 신문을 다 읽고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신문을 읽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경우, '＊いや、新聞は読みません(읽(다)+ 상대 높임 + 부정 / 아뇨,

신문은 읽지 않습니다'라고는 답할 수 없다. '－ていない(상＋부정 / －고 있지 않다)'를 사용해 'いや、新聞は読んでいません(읽(다)＋상＋상대 높임 + 부정 / 신문은 읽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래의 '계속동사 + ない'는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당신은 무슨 신문을 읽으십니까? 아사히신문입니까?)'라는 질문에 'いや、私は朝日は読みません(읽(다)+ 상대 높임 + 부정 / 아뇨, 저는 아사히(신문)는 읽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사실이 아닌 현재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이미 본고 제 2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読む'를 상태동사로 보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순간동사 + ない'는 계속동사와 같이 과거 또는 미래 사실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あの人はまだ死なない(죽(다)+ 부정 / 그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그 사람은 아직 생존 중이다"는 뜻으로, 과거에 있어 '死ぬ'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사람은 앞으로 오래도록 생존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 즉 "가까운 미래에 '死ぬ'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제 4 종동사 + ない'는 'あの子は一寸も親に似ない(닮(다)+ 부정 / 그 애는 부모를 조금도 닮지 않았다)'와 같이 현재 상태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문어적인 표현으로 '－ない' 대신에 '－ていない(상＋부정 / －고 있지 않다)'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一寸も親に似ていない(닮(다)+ 상 + 부정 / 부모를 조금도 닮지 않았다)', '高い鼻をしていない(하(다)+ 상 + 부정 / 높은 코를 하고 있지 않다(= 콧대가 높지 않다)'도 같은 예이다.

그 이외에 미연형에 붙는 조동사로는 '－う', '－よう(－을 것이다, －하겠다)'가 있다. 이들 형태는 상태동사와 어울리면 추측(推量)을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다. 'あろう(있(다) + 추측)'는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이며, '水泳が出来よう(할 수 있(다)+ 추측)'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의지(意志)를 나타내기 위해 '＊私も一つ水泳が出来よう(할 수 있(다)+ 의지 / 나도 수영할 수 있어야지)'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계속동사와 결합하면 '書こう(써야지)', '読もう(읽어야지)'와 같이 의지를 나타낼 때가 많다. 순간동사와 어울리면 '死のう(죽어야지)', '結婚しよう(결혼해야지)' 등, 의지를 나타낼 때도 있으나 '＊３時に到着しようと思う(도착하(다)+ 의지 / 3 시에 도착해야지라고 생각한다)', '＊分かろうと努力する(알(다)+ 의지 / 알아야지라고 노력한다)' 등, 의지를 나타내기 어려운 동사가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う', '－よう'는 각 유형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상태동사와 순간동사에는 무의지동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의 동사 분류와 의지동사•무의지동사와의 관계

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용형(連用形)+부속사

동사의 연용형에는 많은 동사가 접미사화해서 결합한다. 먼저 동작의 개시(開始)를 나타내는 'かける(걸다, -기 시작하다)', 'かかる(걸리다, -기 시작하다)'가 있다.

'かける'는 상태동사와는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ありかける(있(다)+ 개시 / 있기 시작하다)'라고는 하지 못한다. '出来かける'는 '家が出来かける(되(다)+(완료) 직전 / 집이 다 완성되었다(= 집이 완성되기 직전이다))'[16]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出来る('할 수 있다'가 아닌 '되다')'가 순간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계속동사와는 문제없이 어울리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동작이 도중까지 행해졌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本を一二ページ読みかけたところへ客が来た(읽(다)+ 개시 / 책을 1、2 페이지 막 읽고 있을 때 손님이 왔다)'. 또한 '地震でご飯を食べかけて往来へ飛び出した(먹(다)+ 중단 / 지진때문에 밥을 먹다 말고 뛰쳐나갔다)'와 같이 해당 동작을 도중에서 중지했다는 의미도 나타낸다. 그뿐만 아니라 동작이 행해지기 바로 직전 상태임을 나타내는 듯한 예도 있다. '小説を読みかけて止めた(읽(다)+(개시) 직전 / 소설을 읽으려다 그만두었다)'는 첫 페이지를 편 후, 막 첫 줄을 읽으려고 했을 때 그만둔 경우로, 이는 '読む(읽다)'를 일시적으로 순간동사화한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순간동사 + かける'는 동작이 도중까지 행해졌다는 중단 의미는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동작이 행해지기 직전 상태에 이르러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동사가 가지는 성질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危く死にかけた(죽(다)+ 직전 /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電気が何度も消えかけた(꺼지다(다)+ 직전 / 몇 번이나 정전될 뻔했다)'가 그 예이다. 제 4 종동사와 'かける'는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かかる(걸리다, -기 시작하다)'는 'かける(걸다, -기 시작하다)'와 비슷하나 그 쓰임이 적고, 상태동사와는 어울리지 못하며 계속동사와 결합 시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일례로 '*読みかかる(읽(다)+ 개시)', '*書きかかる(쓰(다)+ 개시)' 등은 어색하다. 순간동사 중에는 어울릴 수 있는 동사가 많은데 '死にかかる(죽(다)+ 직전 / 죽을 것 같다)', '電気が消えかかる(꺼지(다)+ 직전 / 전기가 꺼지려 하다)'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역시 해당 동작•작용이 행해지기 직전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かかる'와 'かける'와는 서로 많이 닮았으나 'かける'는 주로 직전 상태에 달했거나 본래 상태로 되돌아간 경우에 사용하나 'かかる'에는 나중에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初める(시작하다, -기 시작하다)'는 계속동사와는 잘 어울리나 상태동사•순간동사 그리고 제 4 종동사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는 '切る(자르다, 완전히 -하다)', 'あげる(올리다, 다 -하다)'

라는 동사가 있다. 이들 동사는 상태동사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ありきる(완전히 있다)', '＊出来あげる(완전히 할 수 있다 / 단, 가능의 '出来る')'라고는 할 수 없다.

계속동사와 어울리면 '本を読み切る(책을 (끝까지) 다 읽다)', '絵を書き上げる(그림을 다 그리다)'와 같이 모두 '전부', '끝까지'를 의미한다. '切る'는 순간동사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못하나 결합하게 되면 계속동사와는 달리 '끝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知りきっている(충분히 알고 있다)', '分かりきったこと(뻔한 것, 다 아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제 4 종 동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終る(끝마치다, 끝까지 다 – 하다)'라는 동사는 '初める(시작하다)'와 같이 계속동사와만 어울린다.

'다시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なおす(고치다, 다시 – 하다)'도 상태동사와는 어울리지 못하지만 '読みなおす(다시 읽다)', '書きなおす(다시 쓰다)' 등과 같이 계속동사와는 왕성하게 결합한다. 순간동사와는 결합하기는 하지만 '結婚しなおす(다시 결혼하다)'와 같은 농담조 표현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간동사는 한 번 실행하면 두 번 다시 행하기 어려운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동사가 많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死ぬ(죽다)'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

습관화를 나타내는 'つける(늘 – 해 오다)'라는 동사 또한 'ふだん書きつけているからうまいものだ(쓰(다)+ 습관 + 상 / 평소에 글을 써 버릇해서 글을 잘 쓴다)', '見つけて目が肥えている(보(다)+ 습관 / 항상 봐 왔기 때문에 눈이 높아졌다)'와 같이 많은 계속동사와 결합한다. 그러나 상태동사, 순간동사 등과는 결합하지 못한다 .

연용형에 결합하는 조사 중 '– ながら(– (으)면서)'가 있다. '– ながら'는 상태동사와 어울리면 역접(逆接)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人間でありながらその振舞は畜生に劣る(이(다)+ 역접 /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짐승만 못하다)'는 '– 임에도 불구하고', '近くに見えながらなかなか行着かない(보이(다)+ 역접 / 눈앞에 보이는데 좀처럼 도착하지 못한다)'는 '보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계속동사 + ながら'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 원칙이다. '歌を歌いながら歩く((노래를) 부르(다)+ 동시 동작 / 노래를 부르면서 걷다)', 'まあ食べながら話そう(먹(다)+ 동시 동작 / 자, 먹으면서 얘기하자)' 등이 그 일례이다. 다만 '自分では食べながら他人には食べさせない(먹(다)+ 역접 / 자기는 먹으면서 남에게는 먹지 못하게 한다)'와 같이 '–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다 .

순간동사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못하는데 결합하게 되면 대부분 역접을 나타낸다. '大学を卒業しながら手紙一本ろくに書けない(졸업하(다)+ 역접 / 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편지 한 장 변변히 못 쓴다)', '悪いこととは知りながら(알(다)+ 역접 /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도)'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순간동사 + ながら'는 '해당 동작•작용이 끝나고 그 결과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生きながら埋められた(살(다)+ 유지 / 산 채로 묻혔다)', '立ちながら物を食う(서(다)+ 유지 / 선 채로 음식을 먹다)' 등이 그 예로 보인다. 이 경우 '生きる(살다, 생존하다)', '立つ(서다)'는 둘 다 계속동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내는 예라 볼 수 있다.

제 4 종동사 또한 '－ながら'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못하는데 만약 결합하게 되면 '体力に優れながら…(뛰어나(다)+ 역접 / 체력이 뛰어나면서도)'와 같이 역접을 나타낸다.

연용형과 결합하는 조동사 중 희망(希望)을 나타내는 '－たい(－고 싶다)'가 있는데 상태동사와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かくありたいと願う(있(다)+ 희망 / 이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많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허용되는 데 비해, '* 私も水泳が出来たい(할 수 있(다)+ 희망 / 나도 수영을 할 수 있고 싶다)'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문이다. 계속동사•순간동사와는 비교적 자유롭게 어울리기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読みたい(읽고 싶다)', '書きたい(쓰고 싶다)', '卒業したい(졸업하고 싶다)', '結婚したい(결혼하고 싶다)' 등이 그 예이다.

상대 높임(丁寧)을 나타내는 조동사 '－ます(－합니다, －입니다)'는 상태동사, 계속동사, 순간동사와는 지극히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제 4 종동사는 동사에 따라 어울리기 어려운 동사가 있다. '似ます(닮(다)+ 상대 높임 / 닮습니다)', 'すぐれます(뛰어나(다)+ 상대 높임 / 뛰어납니다)'와 같이 어울리는 동사가 있기는 하지만 '高い鼻をする(콧대가 높다)', 'ばかげる(어이없다)' 등과는 어울리지 못한다.

연용형과 결합하는 조동사에는 이 이외에도 추측(推量)을 나타내는 '－そうだ(－일 것 같다)'가 있다. 각 유형의 동사와 어울리지만 상태동사와 어울리면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그 기본 임무이다. '如何にもお金がありそうだ(있(다)＋추측 / 정말이지 돈이 꽤 있을 것 같다)', '此のナイフは切れそうだ(잘 들(다)＋추측 / 이 칼은 잘 들 것 같다)'는 현재에 대한 추측이고, '五月頃食糧危機がありそうだ(있(다)+ 추측 / 5 월쯤 식량 위기가 있을 것 같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지만 실은 이때의 'ある'는 임시로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순간동사로 볼 수 있다.

계속동사와 결합하면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인데, '泣きそうな顔(울(다)+ 추측 / 울 것 같은 얼굴)', '雨がふりそうだ((비가) 오(다)+ 추측 / 비가 올 것 같다)' 등이 그 예이다. 대단히 잘 우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을 만나 '如何にも泣きそうな顔をしている(울(다)+ 추측 / 정말이지 울상인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추측이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현재 사실을 추측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습관적인 사실에 대한 추측으로 '泣く(울다)'가 상태동사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간동사 + そうだ'는 '電気が消えそうだ(꺼지(다)+ 추측 / 전기가 나갈 듯하다)', '忘

れそうで仕方がない(잊(다)+ 추측 / 잊을 것 같아 불안하다)'와 같이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제 4 종동사와 'そうだ'는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

〔3〕 4 단활용(四段活用)[17] 의 음편형(音便形)[18]+ 부속사

먼저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た(－었－)'로, 이 조동사는 각 동사 유형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た'와 어울려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상태동사, 계속동사, 순간동이다. 이들 동사의 예를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듯하다. '－た'와 관련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제 4 종동사가 '－た'와 결합하면 과거의 사실이 아닌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向こうに聳えた山(솟(다)+ 과거 / 건너편에 솟은 산)', '高い鼻をした人(하(다)+ 과거 / 높은 콧대를 한 사람)', 'すぐれた著書(뛰어나(다)+ 과거 / 뛰어난 저서)' 등인데 '聳えている山(솟(다)+ 상 / 솟아 있는 산)', '高い鼻をしている人(하(다)+ 상 / 콧대가 높아 있는 사람)', 'すぐれている著書(뛰어나(다)+ 상 / 뛰어나 있는 저서)'와 같은 의미로 과거에 있어 '聳える(솟다)', '高い鼻をする(콧대가 높다)'라고 할 만한 동작•작용이 있어서 현재 그 결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상태이다. 따라서 조동사 '－た'의 의미 용법은, 보통 문법서에서 언급된 상기 내용 이외에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며 또한 이와 같은 의미 용법은 제 4 종동사와 어울릴 때에만 나타난다는 내용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또한 '－た(－었－)'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태동사와 결합할 때에만 나타난다. 예를 들면 'この椅子は先刻から此処にあった(있(다)+ 과거 / 이 의자는 아까부터 여기에 있었다)', 'この子は小学校の時から算術がよく出来た(할 수 있(다)+ 과거 /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를 잘할 수 있었다(= 잘했다))' 등이다. 그리고 '－た'는 현재의 사실, 미래의 사실을 새롭게 상기하는 경우에도 자주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상태동사 + た'의 결합에 한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극으로 자주 공연되는 国定忠治의 대사 즉, 'おれにはお前という強い身方があった(나한테는 너라는 멋진 아군이 있었다)'는 현재 사실을 상기한 예이고, 'では何時お会いしましょう。明日にしましょうか。いや明日は駄目です。明日は研究会がありました。(있(다)+ 상대 높임 + 과거 / 그럼 언제 만날까요 ? 내일로 할까요 ? 아뇨, 내일은 안돼요. 내일은 연구회가 있었어요(= 있어요))'는 미래 사실에 대한 상기를 나타낸 예이다. 계속동사, 순간동사에는 이와 같은 용법이 없다.

음편형(音便形)은 조사 '－て(－고, －서)'와 연결한 뒤 보조동사와 어울리는 일이 많은데 '－ている(상 / －고 있다, －어 있다)'형은 본고 제 1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의 부정형인 '－ていない(상 + 부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형태와 어울리는 동사는 계속동사, 순간동사 그리고 제 4 종동사로, 이들 모두 현재 상태를 나타내지만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계속동사 + ていない'는 과거에 해당 동작이 행해졌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론 미래에 그 동작이 행해질 것이나 아직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비해 '순간동사 + ていない'는 후자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本を読んでいない(읽(다)+ 상 + 부정 /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아직 안 읽었다'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읽었으나) 지금은 안 읽는다'인 경우에도 쓸 수 있으나 '結婚していない(결혼하(다)+ 상 + 부정 / 결혼하지 않고 있다)'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

'－てしまう(－해 버리다)'라는 형태 또한 각 동사 유형 간 차이가 명료한데 먼저 상태동사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あってしまう(있(다)+ 버리다)', '＊出来てしまう(할 수 있(다)+ 버리다)는 비문이다. '物もらいが出来てしまった(다 되(다)+ 버리(다)+ 과거 / 비렁뱅이가 다 되어 버렸다)'의 '出来る(다 되다)'는 순간동사이다.

'계속동사 + てしまう'는 자주 쓰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는 '완전히', '끝까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昨日買った本は一日で読んでしまった(읽(다)+ 버리다 + 과거 / 어제 산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어 버렸다)', '答案を書いてしまった人は出てよろしい(쓰(다)+ 버리다 + 과거 / 답안을 다 쓴 사람은 나가도 좋다)' 등이 그 예이다. 그 이외에 '答案に大変な間違いを書いてしまった(쓰(다)+ 버리다 + 과거 / 답안에 틀린 답을 써 버렸다)'와 같이 해당 동작•작용이 행해지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쩌면 'あの人もとうとう死んでしまった(죽(다)+ 버리다 + 과거 / 그 사람도 드디어 죽어 버렸다)', '電気が消えてしまった(꺼지(다) + 버리다 + 과거 / 전기가 나가 버렸다)'와 같이 '순간동사 + てしまう'가 나타내는 의미 즉, '해당 동작•작용이 행해지고…'라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한한다.

'－て来る(－어 오다)', '－て行く(－어 가다)'는 각 유형 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는데 상태동사와 결합하면 점차 그러한 상태로 변화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この子も一時は随分心配したがこの頃は段々出来て来た(할 수 있(다)+ 어 오다 + 과거 / 이 아이도 한때는 꽤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점점 할 수 있게 되었다)', '富士山がハッキリ見えて来た(보이(다)+ 어 오다 + 과거 / 후지산이 똑똑히 보이게 되었다)' 등이 그 예이다. 계속동사와 어울리면 상태동사와는 달리 그와 같은 사건이 계속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これまでは子供の雑誌ばかり読んで来た(읽(다)+ 어 오다 + 과거 / 지금까지는 어린이 잡지만 읽어 왔다)', '以上しゃべって来たことを約言すれば(말하(다)+ 어 오다 + 과거 / 이상 말해온 것을 요약해 보면)' 등인데 이들 예는 서서히 변해가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순간동사와 '－て来る'는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結婚して来る(결혼하(다)+ 어 오다)', '＊死んで来た(죽(다)+ 어 오(다)+ 과거)' 등은 모두 무의미한 예이다.

‘－て行く(－어 가다)’는 ‘－て来る(－어 오다)’만큼 자유롭게 쓰이지는 못하지만 만약 동사와 결합하면 그 쓰임은 ‘－て来る’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종지형(終止形)＋부속사, 연체형(連体形)＋부속사

종지형, 연체형에 연접하는 조동사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だろう(－일 것이다)’, ‘－らしい(－일 것이다)’가 있다. 이들 형태가 각 유형 동사와 결합할 때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そうだ(－일 것이다)’의 상황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즉, 상태동사와 어울리면 현재 사실,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계속동사 또는 순간동사와 함께 어울리면 오로지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만 나타낸다. ‘船橋には魚があるだろう(있(다)+ 추측 / 후나바시(지명)에는[19] (아마) 생선이 있을 거야)’는 현재의 추측, ‘明日行ってもまだあるだろう(내일 가도 아마 있을 거야)’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고, ‘今に食べるだろう(먹(다)+ 추측 / 곧 먹을 거야)’, ‘そろそろ結婚するだろう(결혼하(다)+ 추측 / 이제 곧 결혼하겠지)’는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러나 ‘계속동사＋だろう, 계속동사＋らしい’가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경우가 있는데 이는 ‘成程あの体格ならば沢山食べるだろう(먹(다)+ 추측 / 정말 그 체격이라면 많이 먹겠네)’와 같이 현재 습관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かも知れない(－을지도 모른다)’, ‘－に違いない(－임이 틀림없다)’, ‘－かしら(－을지 모른다, －일까)’도 ‘－だろう’, ‘－らし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まい(－않을 것이다)’는 추측과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데, 상태동사와 어울리면 원칙적으로 부정 추측을 나타내고, 계속동사 또는 순간동사와 결합하면 부정 의지 및 부정 추측을 나타낸다. 이는 ‘－う’, ‘－よう(－을 것이다, －하겠다)’와 마찬가지로 본고의 동사 분류와 의지동사•무의지동사에 대한 분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별반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추측을 나타낼 경우, ‘상태동사＋まい’는 현재 사실과 미래 사실에 대한 부정 추측을 나타내는 것은 ‘－だろう’와 동일하지만, ‘계속동사•순간동사＋まい’는 과거 사실과 미래 사실에 대한 부정 추측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あの人はこんな本を読むまい(읽(다)+ 부정 추측 / 그 사람은 이런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는 ‘아직 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 추측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읽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미래 사실에 대한 부정 추측도 나타낸다. ‘あの人はまだ結婚しまい(결혼하(다)+ 부정 추측 /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겠지)’도 전자는 물론 후자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조사 ‘－な(－마라)’인데 상태동사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だらしなく見えるな(보이(다)+ 금지 / 칠칠치 못하게 보이지 마)’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계속동사와 순간동사와는 모두 결합할 수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계속동사＋な’는 미래에 있을 동작에 대한 금지는 물론 지나간 일을 탓할 때도

쓰이는 경향이 있다. ‘君にだけ教えるが誰にも言うな(말하(다)+ 금지 / 너한테만 알려 주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는 전자에 대한 예이고, 무엇인가 숨기는 일을 간파당했을 때의 ‘オイオイ変なことを言うな(이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만 해))’는 후자의 예이다.

‘순간동사 + な’는 미래에 대한 금지만을 나타내고 과거 동작을 제지하는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そんなに早く結婚するな(결혼하(다)+ 금지 / 그렇게 빨리 결혼하지 마)’는 미혼인 사람에게 하는 말로, 기혼인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 .

제 4 종동사의 종지형•연체형에는 부속사 류가 거의 결합하지 못한다.

제 5 장　다른 동사 분류와의 관계

지금까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작용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성질을 갖는냐는 관점에서 일본어 동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차이를 고찰해 왔다. 그런데 과연 본고의 동사 분류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다른 여러 동사 분류법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선행연구 중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 분류법은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는 분류법일 것이다. 이를 본고의 분류법과 비교해 보면 우선 본고의 상태동사는 거의 예외 없이 자동사이다. ‘ある(있다)’, ‘出来る(할 수 있다)’ 등이 그 예이다. 단, 이 글의 제 2 장의 예 중, ‘要する(필요하다)’는 ‘三十分を要する(30 분을 필요로 하다)’와 같이 쓰여 타동사처럼 보이지만, 무엇인가를 처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에 타동사 중에서도 매우 타동사답지 않은 타동사이다.

다음으로 계속동사를 살펴보면 ‘書く(쓰다)’, ‘読む(읽다)’ 또는 ‘見る(보다)’, ‘聞く(듣다)’, ‘食う(먹다)’, ‘飲む(마시다)’ 등과 같이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타동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사에도 ‘笑う(웃다)’, ‘泣く(울다)’와 같은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降る((비가) 내리다)’, ‘吹く((바람이) 불다)’ 등도 있는데 결코 그 수효가 적지 않다. 이처럼 계속동사에는 타동사와 자동사가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아래의 순간동사와 비하면 타동사가 월등히 많다고 단언할 수 있다. 즉, 순간동사 ‘死ぬ(죽다)’, ‘結婚する(결혼하다)’, ‘(電燈が)点く((전등이) 켜지다)’, ‘(電燈が)消える((전등이) 꺼지다)’ 등은 모두 자동사이다. ‘結婚する(결혼하다)’, ‘離婚する(이혼하다)’ 등은 ‘学校を卒業する(학교를 졸업하다)’, ‘女房を離婚する(아내와 이혼하다)’와 같이 쓰이나 밑줄 친 ‘を(－을 / 를)’는 분리를 나타내는 ‘を’로 이들 동사가 반드시 타동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忘れる(잊다)’, ‘知る(알다)’ 등은 타동사라고 보아야 하기에, 결국 순간동사는 그 대부분이 자동사이며 일부가 타동사라고 해

야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동사에는 타동사가, 순간동사에는 자동사가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경향이 반영되어서인가, 의미상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타동사를 살펴 보면 타동사는 계속동사에 속하고 자동사는 순간동사에 속하는 동사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아주 큰 흥미를 끈다. 하나의 예로 'きめる(정하다, 결정하다)'와 'きまる(정해지다, 결정되다)' 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다. 지금 3 명의 어린이가 술래잡기를 하기 위해 술래를 정하고자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 셋이 각각 가위, 바위, 보를 내 술래를 정하지 못했다. 두 번째에서는 모두가 바위를 내 술래를 정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동안, '鬼をきめている(정하(다)+ 상 / 술래를 정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鬼がきまっている(정해지(다)+ 상 / 술래가 정해져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 '鬼がきまる(술래가 정해지다)'라는 것은 세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두 사람이 가위를 내고 한 사람이 보자기를 냈다고 하면, 바로 그 순간이다. 결국 'きめる(정하다)'는 계속동사이지만 'きまる(정해지다)'는 순간동사라 해야할 것이다. '(魚を) 焼く((생선을) 굽다)'와 '(魚が)焼ける((생선이) 구워지다)'를 예로 들어도, '(木を)植える((나무를) 심다)'와 '(木が)植わる((나무가) 심어지다)'를 예로 들어도, 타동사 '焼く(굽다)', '植える(심다)'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동사인 '焼ける(구워지다)', '植わる(심어지다)'는 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 4 종동사는 원칙적으로 자동사이나 때로는 '高い鼻をする(콧대가 높다)'와 같이 'する(하다)' 동사와 어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타동사답지 못한 타동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법서를 보면 동사를 의지동사와 무의지동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주체의 의지에 의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의지동사이고 그렇지 못한 동사가 무의지동사이다. '机がある(책상이 있다)', '椅子がある(의자가 있다)'와 같이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그 동사는 당연히 무의지동사이다. 이와 같은 예를 제외하고 'あの人はマライ語が出来る(그 사람은 말레이어를 할 수 있다)'의 '出来る', 'あの人は立派に見える(그 사람은 훌륭해 보인다)'의 '見える(보이다)' 등과 같은 동사를 생각해 보면, 이들 동사도 모두 무의지동사이다. 앞에서 이들 동사는 의지를 나타내는 '－う', '－よう'(－을 것이다, －하겠다)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름아닌 이들 동사가 무의지동사이기때문이다. 단, 상태동사 중 '居る(있다)'는 유일한 의지동사로 분류된다. '居る'가 다른 상태동사와 그 쓰임이 많이 다른 것은 이와 같은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계속동사인데 이들 동사에는 의지동사가 월등히 많다. '読む(읽다)', '書く(쓰다)', '食う(먹다)', '飲む(마시다)' 등, 이들 모두가 의지동사이다. 무생물을 주어로 하는 '降る((비가) 내리다)', '燃える(타다)' 등이 무의지동사임이 당연하듯 인간을 주어

로 하는 동사는 그 대부분이 의지동사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순간동사에는 무의지동사 또는 그에 준하는 동사가 많은 듯하다. '(眼が)覚める((눈이) 뜨이다(= 잠이 깨다))', '(病気が)癒る((병이) 낫다)' 등 인간과 관련된 동사가 있지만 무의지동사이다. '眠る(자다)', '忘れる(잊다)' 등은 '眠ろう(자(다)+ 의지 / 자야지)', '忘れよう(잊(다)+ 의지 / 잊어야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생각한 대로 쉽게 실행할 수 없음은 그동안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했을 터, 이들 동사를 순수한 의지동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死ぬ(죽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명백하다 .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속동사는 의지동사로 분류되고 순간동사는 무의지동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落とす(떨어뜨리다, 잃어버리다)'와 같이 의지동사로 쓰이면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무의지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이와 같은 동사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棒で柿の実を落とす(막대기로 감을 떨어뜨리다)'라고 할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의지동사이나, 이 경우의 '落とす'는 잘 익은 감을 뒤지기 시작해 긴 막대기로 가지를 걸어, 가지 채 떨어 뜨릴 때까지의 모든 시간에 행해진 동작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人込みで蝦蟇を落とす(사람 많은 곳에서 돈지갑을 잃어버리다)'의 '落とす'는 무의지동사로 추정되지만 이 경우의 '落とす'는 추상적인 순간동사로 쓰인 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제 4 종동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의지동사이다.

지금까지의 고찰 이외에도 본고의 분류법과 선행연구의 동사 분류의 관계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글의 제 3 장, 제 4 장의 고찰을 참고하고자 한다. 순간동사는 한 번 행한 동작을 두 번 다시 행할 수 있는 동사가 많지 않으며,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기 어려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많다. 이에 비해 계속동사는 순간동사와는 그 사정이 크게 다른데 이와 같은 차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이와 같은 문제는 곧 본고가 제안한 동사 분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

제 6 장　본고의 동사 분류 재검토

본고 서두에서 동사 분류 시 그 분류 근거에 대해 "시간상으로 본 동작•작용의 성질"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차 각 유형의 동사를 살펴보면, 특히 제 4 종동사는"어떠한 상태를 띠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번째 동사 즉, 순간동사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을 듯싶다. '死ぬ(죽다)', '結婚する(결혼하다)' 등도 모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동사 들이다.

다른 두 유형의 동사도 살펴 보면, 계속동사는 “상태의 일시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볼 수 있다. ‘本を読む(책을 읽다)’를 예로 들면, 책을 읽는 동안은 그 사람이 변화한 상태에 있고 다 읽으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첫 번째 동사인 상태동사는 “상태가 변하지 않는 동사”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계속동사를 일시적인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한다면 순간동사는 영속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태동사 = 상태가 변하지 않는 동사

계속동사 = 상태의 일시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순간동사 = 상태의 영속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제 4 종동사 = 상태의 발단을 나타내는 동사

단, 동사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반드시 일시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가, 그리고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반드시 영속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보면,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면서 영속적인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기는 있다. 예를 들면 ‘延びる(늘어나다)’, ‘縮まる(오그라들다)’, ‘清む(맑다)’, ‘濁る(탁하게 되다)’ 등이 그러한 동사들이다. 한 치의 고무줄이 한 시간 걸려 한 치 오 부로 늘어난 경우가, 이 때의 ‘延びる(늘어 나다)’는 계속동사이면서 상태의 영속적인 변화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縮まる(오그라들다)’, ‘清む(맑다)’, ‘濁る(탁하게 되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대로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면서 일시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극히 드물지만 전무한 것은 아니다. ‘瞬く(깜박이다, 반짝이다)’, ‘瞥見する(언뜻 보다)’ 등이 그 예이다. 눈을 깜박한 전후의 상태가 달라졌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것은 순간동사 이면서 일시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 동사 분류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즉, 본고 서두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동사를 (1)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2)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3) 순간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4) 상태의 성질을 띠는 동사와 같이 4 종류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동사를 (갑) 상태가 변하지 않는 동사, (을) 상태의 일시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병) 상태의 영속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정) 상태의 발단을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4 종 류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와 후자 중 어느 쪽의 분류법을 따르더라도 그 소속 동사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다만 위에서 검토 한 ‘延びる(늘어나다)’, ‘縮まる(오그라들다)’, ‘清む(맑다)’, ‘濁る(탁하게 되다)’ 등과 같은 동사가 문제가 된다. 이들 동사는 전자의 분류법을 따르면 (2)에 속하고, 후자의 분류법을 따르면 (병)에 속한다. 또 ‘瞬く(깜박이다)’, ‘瞥見する(언뜻 보다)’는 전자의 분류법에 따르면 (3)에 속하나 후자의 분류

법을 따르게 되면 (을)에 속하게 된다.

상술한 전자의 분류법과 후자의 분류법 중 과연 어느 쪽이 뛰어난가? 이에 대한 우열은 각 활용형의 용법, 결합하는 부속사의 의미 등을 살핀 후, 어느 쪽 분류법을 따르는 것이 더욱 명확한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 문제에 대해 당연히 따지고 넘어가야 하겠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1945 년 2 월 10 일 동경대 언어학연구실 연구회에서 발표한 후, 동년 11 월 30 일에 언어문화연구소에서 열린 연구회에서 다시 발표한 내용에 수정을 더한 것이다. 본 논문이 마무리되기까지 服部四郎, 時枝誠記両博士, 林大, 大野晋, 池上二良, 三根谷徹, 和田実, 川上蓁 등, 많은 분의 귀중한 조언과 도움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 약간의 손질만 더해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林 씨의 동사 정의에 대한 견해 즉, 계속동사에 대해 “일정한 시간 내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해당 동작을 일정한 시간 내에 계속되는 동작으로 파악한 동사”이며, 순간동사는 “어느 순간에 완료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해당 동작이 일정 시간 내에 계속된다는 개념과는 무관하다고 파악한 동사”라고 지적해 주었는데, 본고 p.18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食べながら(먹(다)+ 으면서)’의 ‘－ながら’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가와 같은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그의 식견에 탄복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

付記：本稿は平成 27 ～ 29 年度科学研究助成基金助成金（基盤研究（C）（課題番号 15K02771・研究代表者　吉田幸治）による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

注

1　현대 일본어 상 연구를 집대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工藤真由美（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는 金田一春彦（1950）（‘国語動詞の一分類’, “言語研究”15, 金田一春彦（編）（1976）“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에 대해 “金田一（1950)의 연구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金田一（1950)의 논문은 약 70 년 전에 발표된 논문이나 현대 일본어 상 연구의 출발점으로, 일본어 상 연구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할 중요한 논문이다.

2 본고에서는 예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밑줄을 긋고 간단한 설명을 부언하였다.

3 '－ている'는 일본어의 계속상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의 하나로, '진행상(한국어 '－고 있－'에 해당)'은 물론 '결과상(한국어의 '－어 있－'에 해당)', 그리고 '반복상' 및 '완결상' 등도 나타낸다.

4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예문 중 저자가 '어색하다' 또는 '비문'이라고 판단한 예문에 대해서는 문장 앞에 '*' 표시를 하였다.

5 '知る'와 '分かる'는 한국어로는 모두 '알다'로 그 의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자는 지식을 새롭게 획득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비해 후자는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획득했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6 일본어의 '－ている'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진행상과 결과상을 실현하는 '－고 있－'과 '－어 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 있－'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7 일본어의 부속사(付属辞)는 자립어와는 달리 단독으로 문장이나 절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이에는 활용 여부에 따라 조동사와 조사로 나뉜다.

8 'ある'와 'いる'는 한국어로는 모두 '있다'에 해당하나 전자는 주로 무생물의 존재를 나타내고, 후자는 주로 유생물의 존재를 나타낸다.

9 종지형(終止形)이란 일본어 용언(동사, 형용사, 형용동사)의 활용형 중 하나로, 문말에서 잘라 말할 때의 어형을 말한다.

10 연체형(連体形)이란 명사 앞에서의 어형으로 한국어 관형형에 해당하는 일본어 용언의 활용형 중 하나이다.

11 조동사(助動詞)는 일본어 부속사(付属辞) 중 활용할 수 있는 품사를 말하는데, 동사 뒤에 쓰여 시제, 상, 피동, 사동 등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12 연용형(連用形)이란 용언 앞에 나타나는 일본어 용언의 활용형 중 하나이다. 그리고 동사의 연용형은 명사로도 전용된다.

13 일본어의 'お'는 접두사로 체언 또는 연용형 앞에 쓰여 상대방에 대한 존경, 또는 상 대방에 관한 것을 나타낸다.

14 접사(接辞)란 일본어의 부속사 중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소로 격, 시제, 품사의 전환 및 의미 부가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15 미연형(未然形)은 용언을 부정하거나 의지, 추측을 나타낼 때 변화하는 일본어 용언의 활용형 중 하나이다.

16 예문 '집이 다 완성되었다'는 집 한 채가 다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건 및 상태의 정도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이 완성되기 직전 상태를 과장해서

말할 경우의 표현이다.

17 4단활용(四段活用)이란 일본어의 문어 및 역사적 カナ쓰기에 의한 동사 활용 형식의 하나로, 활용어미가 4개의 단(段)에 걸쳐 변화한다.

18 음편형(音便形)이란 일본어 동사 중 さ行五段活用를 제외한 모든 5단 동사에 '－て(－고)', '－た(－었)', '－たり(－하거나)', '－たら(－한다면)' 등이 연결될 경우 발음상의 편의를 위하여 어중, 어미의 음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19 후나바시(船橋)는 일본 치바현(千葉県) 북서부에 있는 시(市)이다.